



#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2004. 8. 형제캠프에서...

## 가을의 프락에서



세브란스병원 부모모임 한빛사랑회  
회장 정향숙



그 뜨겁던 여름햇살이 어느덧 물러가고 가을이 찾아온다.  
계절의 흐름은 누구도 뒤바꿀 수 없는 순리임을 깨닫게 된다.  
귀뚜라미가 제 계절을 이야기하듯 쌀쌀해진 날씨 앞에서 환아들이 걱정된다.  
환절기가 되면 많은 아이들이 병실을 찾아온다.  
그 또렷한 눈망울로 아픔을 참아가며 치료받는 아이들이 너무도 안쓰럽다.  
어쩌면 너무도 빨리 찾아온 병마 앞에 무기력한 모든 사람들...  
다른 아이들을 대신해서 아파해야 하기때문에 모든 혜택을 다 받아야 된다는 어쩌면 모순된 이야기들...  
우리는 그 아이들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

봉사라고는 하지만 내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과연 지금 나는 환아들에게 잘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묻고 싶다.  
“우리는 커다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봉사의 사랑은 실천할 수 있다”는 성녀 데레사 수녀님의 말씀처럼 나 또한 우리 환아들을 위해서 작으나마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

## 승리로 가는 힘찬 행군!!

횡문근육종을 진단받은 주혜는 현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혜는 2004년 7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바쁘고 정신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아테네 올림픽으로 지구촌이 들썩거릴 때 태풍 매기로 인하여 엄청난 홍수피해가 있었고 더군다나 10년만에 찾아온 폭염은 우리로 하여금 생활의 리듬을 잃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10월 횡문근육종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김주혜 엄마입니다.  
작년 9월 중순경 오른쪽 어깨가 자주 아프다는 말과 함께 시작된 힘든 싸움이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 짧을 수도 있는 기간 동안 저희 아이는 강행군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진단 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시작된 항암 치료가 고용량까지 11회였고 작년 겨울 방사선 28회... 그 이후 3월에 종양제거 수술을 했으며, 4개월만인 지난 7월 1일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외래로 혈액검사와 면역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처음 광주에서 암이 이미 많이 진행된 듯 하다는 엄청난 소리를 들었을 땐, 누구나 그렇듯이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지만 한 가닥 믿음이 있었기에 소망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아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병원을 정해주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치료과정과 시간들을 인도해 주신 거라 확신하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수술 후 힘든 과정들을 잘 견디고 이겨낸 주혜가 너무도 고맙고 대견하여 그때 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치료과정 중, 혹은 검사과정에서 초조해하고



짜증날 때가 있는데, 오히려 주혜가 더 침착하게 “엄마 괜찮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난 괜찮아.” 하며 저를 위로하고 안심시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강하고 의지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지가 더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6학년이 된 후에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좋은 컨디션으로 잘 지내는데 보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2학기에는 등교해서 사랑하는 선생님 과 친구들도 볼 수 있겠지요.  
저희 부부는 가끔 마주 앉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객지에서 병원생활을 하게 된 우리에게 먼저 병원 내의 여러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은 가족과 같았고 한 없이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외롭지 않았고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웃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과거의 일들을 잊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해롭습니다. 아픈 기억들을, 힘들었던 과정들을 잊을 수 있었기에 우리 가족은 오늘도 둘러앉아 웃으며 식탁을 대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인지 문득문득 느끼면서 행복에 젖곤 합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가족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소망을 주자고요. 우리 아이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직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많다는 걸 잊지 마시고 힘찬 행군,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 스트레스, 알면 쉬워집니다!

본 내용은 부산 우체국 한사랑의집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중 일부입니다.

## 스트레스란 무엇인가요?

스트레스는 삶을 지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제수행에 직면하여 이를 잘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예측할 때 그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외적, 그리고 내적 압력으로부터 올 수 있으며, 긍정적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즉 적절한 수준일 때 긍정적이며, 과도할 때 부정적이 됩니다.

##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여기서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간략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찾아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 1 생각 바꾸기

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스트레스로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우선으로 본다면,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재발되는 건 아닐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등의 부정적 생각과 표현은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게 하고, 보호자들 스스로 삶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고, 아이의 치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2 생각 멈추기

자신의 의지로 감정 상태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나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생각들은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생각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불행한 생각을 멈추고 즐거운 생각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3 행동 바꾸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즐겁고 유쾌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고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슬프면 얼굴을 찡그리거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분이 우울할 때 웃어보거나 휘파람, 노래 등을 불러 행동을 먼저 바꾸게 되면 기분도 동시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 4 호흡법과 근육이완법

#### 1) 호흡법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빠르고 가쁜 호흡을 느리고 깊은 호흡으로 변하게 함으로써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또한 심호흡법은 몸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 2) 단계

- 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한다.
- ② 자세는 반가부좌 자세로 등, 목 그리고 머리를 바로 세우고 허리와 어깨에 힘을 뺀 후 손은 편안하게 양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도록 준비한다.
- ③ 4초간 숨을 깊이 들이마서 가능한 배꼽까지 내리고, 2초간 멈춘 후 4초간 천천히 내쉰다.
- ④ 오로지 평온하게 호흡하는 것만 생각하며 긴장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한다.

## 5 운동법, 취미활동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활동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 1) 운동의 효과

- ①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에 분비되는 신체에 해로운 호르몬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 ② 타인들에 의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되게 되고,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긴다.
- ③ 운동시 엔도르핀이 생성되어 긴장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며, 우울과 불안이 감소된다.
- ④ 운동시 스트레스 사건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그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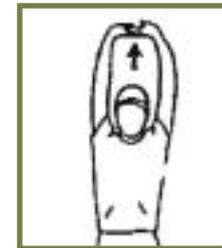
### 2) 운동의 종류

걷기, 체조, 스트레칭, 요가 등 병실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수영,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이 있다.

예)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두 팔을 앞으로 당긴다.



두 팔을 위로 당긴다.



두 팔을 뒤로 당긴다.



두 팔을 위로 꼬아 당긴다.



한 팔로 반대 팔꿈치를 당긴다.



한쪽 팔을 등뒤로 꺾고 다른 팔로 누른다.



한쪽 팔로 반대팔을 뒤로 당기고 목을 당긴다.



의자에 앉아 몸을 앞으로 숙인다.

<자료출처:스스로 관리하는 스트레스, 손명자 외 3인, 1999>

# Try 1216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소문난 사고뭉치였어요. 저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회의가 열릴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그랬던 제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중학교 1학년 여름이었어요. 중학교에 올라와서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했죠. 성적도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기만 하던 녀석이 공부를 해서 그런지 조금씩 아프더라고요. 팔도 아팠다가, 다리도 아팠다가, 잘 걸리지도 않던 감기도 걸리고, 결국 뇌수막염까지... 그러던 중 혈액검사를 하고나서 제 백혈구 수치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제가 백혈병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엄청 건강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보자고 하시고, 친누인 저는 서울에 간다는 사실에 무조건 좋았죠. ^^;;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 종합병원에서 진찰받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특진 예약에, 대기자도 많았고요. 어려움 끝에 간신히 진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저를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 선생님께선 저를 내보내고 어머니를 호되게 야단치셨대요. 왜 저 정도가 될 때까지 병원에 오지 않았냐면서요. 저는 바로 골수검사를 받았죠. 아무것도 모르고 검사를 시작한 저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무지 아프더라고요. 제 병명은 만성골수성백혈병이었어요. 비장이 많이 부어서 뒷배만 볼록 튀어나와 있었죠. 그 뒷배 때문에 매일같이 줄넘기를 하고 플라후프를 돌렸는데 비장이 부어서 나온 거라니... 어이없는 웃음이 나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의 병원생활은 시작됐지요. 병원에서도 소문난 개구쟁이였어요. 얼마동안 치료를 하고 나서 이식을 준비했지요. 운이 좋게 누나의 골수가 저와 일치했고, 1997년 12월 16일 골수이식을 했어요. 그날의 도전을 기억하기 위해 지금 제

메일주소도 try1216@kclf.com입니다. 워낙 긴 병원생활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생생하네요. 정확히 100일만에 퇴원을 했거든요. 그 당시 최고 기록이었죠. 그때 간호사 선생님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간신히 얼굴만 기억나네요. 그 시절 병원 생활의 추억이 제게는 소중한 거니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물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놀고 싶을 때 마음껏 뛰어 놀지 못하는 게 서럽고 아쉬웠지만 병실 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스티라던가 그런게 있었거든요. 여기서 스티라란 간호사 선생님 몰래 과자먹기, 소독하지 않고 만화책 가지고 들어와서 보기 등등 절대로 해선 안 되는 행동이었죠. 여러분은 절대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는 먹는 것에 있어서는 남달리 철저하셨어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절대 주지 않으셨죠. 그때 서럽게도 느껴졌지만, 지금은 어머니께서 당연한 일을 하셨구나.. 하고 생각돼요. 병원 생활에서 잊히지 않는 한 가지, 바로 종이접기였어요. 제가 종이접기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종이로 공룡을 접어 간호사 선생님들께 선물도 하고, 엄청 재미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루하고 힘든 병원생활을 즐겁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물론 그것만으로는 그 힘든 생활을 즐길 수 없었겠죠. 항상 옆에서 강한 모습으로 저를 지켜주시는 어머니와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어머니의 식사를 챙겨주시는 이모, 항상 멋진 모습만 보여줬던 상언이형, 일일 찻집을 열어 제게 성금을 모아주시기도 하셨던,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이 되어 주신 중1때 담임선생님이셨던 김호중 선생님 등... 수많은 분들이 제게 힘이 되어 주셨기에 제가 그 힘들고 지루한 100일간의 사투를 건디는 수준을 넘어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3년 고3 여름...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어머니와



## 조 관 익

1984년 9월 30일생  
1997년 7월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  
2003년 여름 치료종결  
현재 청암대 물리치료학과 1년 재학

이모, 그리고 제 주위에 계신 분들 모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병원에 정이 들었는지 약간은 섭섭하더라고요. 아무튼 힘든 치료과정을 무사히 견디고 지금은 청암대학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전공선택 문제로 어머니랑 조금 다투기도 했어요. 저는 일어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보건계열을 고집하셨거든요. 병원생활이 지겨우실 만도 한데... 어머니의 자세한 속사정을 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한판승으로 지고,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했어요. 지금 후회는 전혀 없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의 친구들도 너무 좋고, 공부도 재미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어머니께 감사드릴 정도니까요. 여기에! 여자친구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여자친구는 없어요. 1학년이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제게 꿈이 있다면 그냥 아담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

께 아픔, 고통, 슬픔을 모르고 오로지 기쁨, 행복, 웃음만 알고 지냈으면 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가정 이죠. 그런 가정에 가장이라... 너무 큰 꿈일까요? 하지만 이런 꿈이 제게 있어 최대의 장점이 될 수 있기에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꿈을 지켜가야죠.^^

마지막으로 지금 병원에서 힘들게 투병하는 친구들에게 짧은 글을 남길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어요. '내가 왜 죽어? 아직 이렇게 어린데.. 나는 살아있는 게 당연한 거야. 절대 죽지 않아. 꼭 100살 채우고 죽을 꺼야~!!' 라는 생각만 했어요. 참 단순하죠? 하지만 아픔이나 고통은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잘 잊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저만의 노하우라고나 할까? ^^;;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완치자 조관익씨는 얼마 전 TV에서 혈액이 부족하여 소아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뉴스와 함께 한 소아암 아이와의 인터뷰를 접하게 된다.

기자 : 많이 아프죠? 어떤 것이 제일 힘들어요?  
아이 : 아프긴 하지만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고 싶을 걸 못 먹어서 그게 좀 힘든 거 같아요.  
기자 : 어떤 음식이 가장 먹고 싶어요?  
관익 : (피자, 햄버거, 치킨 등 하나일거라 짐작해본다.)  
아이 : 김치요... 김치가 제일 먹고 싶어요. .

그 순간, 관익의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마구 흘러 내렸다. "맞아.. 김치가 제일 먹고 싶었어.."라고 중얼거렸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이 흘렀다.

추신으로 보내 온 관익씨의 편지 내용에 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익씨에게 김치가 제일 먹고 싶다는 아이의 말 한마디가 그 동안 표현하지 않았던 서러움을 자극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든 치료 과정을 무사히 견뎌낸 관익씨~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싶다는 꿈,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 헌사랑의 집에서는...

• 서울 우체국 헌사랑의집 •

**함께 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난 여름,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자원봉사 선생님의 지도아래 놀이와 공작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습니다. 놀이시간에는 블루마블과 젠가 등의 각종 게임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고, 공작시간이면 여러 가지 동물에, 생활용품까지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원봉사 선생님께서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없게 되어 쉼터 아이들이 조금은 심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걱정입니다. 꾸준하게 쉼터 아이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어딘가에 숨어있다면, 이번 가을에는 꼭 만나뵐 수 있을 기대해 봅니다.

문의처 : ☎ 02) 766-7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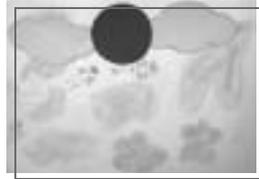
< 조혜린 사회복지사 >



• 여의도 우체국 헌사랑의집 •

**석난이의 구름을 헤치고 나온 행복**

작년 오빠에게서 골수를 기증받아 힘겨운 이식과정을 무사히 마친 석난이는 매주 목요일이 되면 어머니와 함께 여의도 우체국 헌사랑의 집으로 옵니다.



석난이의 그림엔 몇 번씩 등장하는 일관된 주제가 있는데, 그

건 바로 '구름을 헤치고 나오는 커다란 고, 보기에 힘 있는 햇님'입니다. 석난이는 지난 주 마지막 미술치료 시간에 커다란 전지 가득 거침없이 그림을 그리고는 '석난이의 구름을 헤치고 나온 행복'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힘겨운 치료과정 끝에 느끼는 행복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미술치료사 안정희 선생님과 마지막 인사를 할 때에도 다음주에 다시 올 듯, 씩씩하게 헌사랑의집 문을 나서는 모습에서 지금처럼 밝고 건강히 지낼 석난이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미술치료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석난이가 앞으로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생활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김민선·손은주 사회복지사 >

• 신촌 우체국 헌사랑의집 •

**신나는 공작교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공작교실... 매주 금요일이면 세브란스병원 격리실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이용하는 병원학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에게 금요일마다 재미있는 만들기 거리를 가지고 등장하시는 자원봉사 선생님은 반가운 손님이지요. 그런 공작교실은 병원뿐만 아니라 쉼터에서도 이뤄졌습니다. 6세 아동부터 중2 청소년까지, 그동안 참여했던 아이들이 만든 작품도 다양하셨습니다. CD케이스로 만든 액자, 고무인형, 부채, 과자로 만든 집까지... 한데 모아 작품 전시회를 열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듯



합니다. 병원과 쉼터를 오가며 아이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임희은 사회복지사 >



## 쉼터 행사 알려드립니다.

### 1. 광주 우체국 헌사랑의집



**제3회 희망가득 문화체험**

2004년 10월!!! 드디어 우리 친구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문화체험을 떠납니다. 올해는 강진 청자사업소와 김영랑 생가를 체험하고 오겠습니다. 옛 선인의 마음으로 도자기도 빚고, 시인의 아름다운 시구절도 읊으면서 다가오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 시 : 2004년 10월 8일

장 소 : 고려청자사업소, 김영랑 생가 (전남 강진군 소재)

대 상 : 소아암 가족 40명

< 정옥 사회복지사 >

### 2. 대구 우체국 헌사랑의집



**제2회 헌사랑 가족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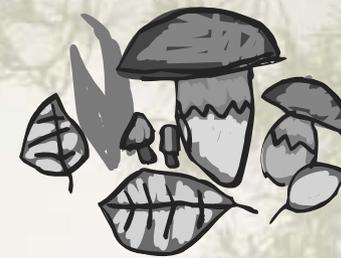
행정자치부의 '2004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캠프를 실시합니다. 오랜 치료생활로 지친 환아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에게 즐거움과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일 시 : 2004년 10월 9일~10일(1박 2일)

장 소 : 무주리조트

대 상 : 대구·경북지역에서 치료 중인 소아암 가족(1가족 3인 기준) 40명

< 하정연 사회복지사 >



## 아주 특별한 인연

이젠 가을인 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따~릉 따~릉 한통의 전화.  
"삼촌! 지애입니다."  
"응 그래 지애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재미있게 보내고 있지?"  
"네, 개학해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애와 저는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우연찮게 이곳저곳에 전화를 걸다가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알게 된 저는 평소 소아암·백혈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온천교회의 헌혈활동을 통해 모아진 헌혈증서를 환아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일을 시작으로 우리 아이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재단의 소식지를 받아보게 되었고, 재단의 박미주 선생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재단의 사업과 행사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소아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여 아이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꼈는데, 재단의 소재자를 보면서 어느 정도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수준이지만요. ^^  
어느 날 박선생님의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병원에서 전혈이 아닌 혈소판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혈소판 헌혈이 뭔지 잘 알지 못하고, 다만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만 알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날 이후 혈소판은 귀한 만큼 귀한 곳에 쓰이는 것임을 깨닫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혈소판 헌혈의 중요성에 대해 스스로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할 때, 소아암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

장재길님은 2001년부터 꾸준히 부산 우체국 헌 사랑의집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 작은 도움 그러나 큰 기쁨을 느끼며...

### 장 재 길 자원봉사자

셨지만, 관심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차츰차츰 재단과 아이들을 알아가면서 행사 때마다 함께 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비디오키메라에 담아 주기도 했습니다. 구덕운동장에서 연예인 축구선수들과 자신있게 공을 차며 뛰는 아이들.. 야구장에서 열심히 응원하며 즐거워하던 아이들...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아이들입니다.  
카메라를 찍을 때마다 귀엽고, 해맑게 웃고, 뛰놀던 아이들의 웃는 모습에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지금도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병실에서 책을 읽던 친구, 엄마랑 놀이를 하고 있던 친구, 연말리기 행사 때 만난 친구들... 지애도 그때 알게 된 친구랍니다.  
끝으로,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환하게 뛰는 그 날이 빨리 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시간이 되면 서울에 있는 재단의 사무국에도 가보고 싶네요.  
재단과 아이들과의 인연도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맘 다져보고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필자의 회사(한국남동발전) 임직원들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매월 둘째 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5월의 어느 날... 그 첫 번째 활동에 나섰다. 도착한 곳은 조금은 번잡스럽게 느껴지는 시장 어귀의 옹문동 우체국이었다. 일상적인 회사업무에서 벗어나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생각에 새로운 의욕이 솟아나는 기분이 느껴졌다. 동료들이 도착하고 마침 마중 나온 쉼터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갔다. 깨끗하게 정돈된 실내와 따뜻하게 맞아주는 쉼터 선생님을 보면서 아늑한 휴식처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 소아암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들을 수 있었다. 소아암이 확률의 병이라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가정에서나 소아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에 소아암 환자와 그 가족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다.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 있는 소아암이라는 병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치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을 느꼈다. 그러나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더욱이

### 손 재 식 자원봉사자 한국남동발전(주)

여의도쉼터가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의 반대로 입주하지 못하고 이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사회의 아픔답지 못한 모습을 보았다.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버티컬을 떼어 내어 세척하고, 장롱을 옮기고, 화장실과 주방, 방, 거실 청소를 시작하였다. 소아암 환자들은 면역력이 취약하다는 선생님의 설명을 되새기며 최대한 깨끗하게 구석구석을 청소하였다. 쉼터의 상태는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으나 막상 손을 대기 시작하니 손 볼 곳이 많았다. 이마에는 구슬땀이 흐르면서 바닥과 가구들은 깨끗하게 변해갔다. 입가에는 절로 따뜻함이 묻어나왔다. 우리의 자식과 같은 귀여운 아이들이 어려운 투병생활 와중에 휴식을 취할 공간이라 생각하니 청소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가전제품도 닦고, 환풍기 날개도 닦고, 벽시계 배터리도 같이 끼우고, 액자도 이리저리 옮기고, 컴퓨터실 전선도 정리하는 등 스스로 각자 일할 거리를 알아서 챙겼다.  
어느덧 6시간에 걸친 청소활동이 끝났



다. 선생님들은 거둬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지만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봉사단은 어색하고 쑥스러울 뿐이었다. 우리의 활동이 어려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뒤로 한 채 집으로 향하였다. 세련된 말로 정리는 못했지만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한 직원들은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임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필자 또한 이런 느낌을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퇴근시간 차량으로 꼭 막힌 원호대로에서 차창 너머로 한강을 바라보았다. 집에 있는 아이들과 투병생활에 힘들어 하는 어린이의 얼굴이 오버랩되어 차창에 그려졌다. 많은 소아암 어린이들이 병을 이겨내고 웃는 모습으로 저 넓은 고수부지를 함께 뛰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빌어 보았다.

# 사랑이 모이는 곳

## 1 제4회 소아암어린이 형제캠프 '우리가 만드는 세상'

지난 8월 10일~12일.  
행정자치부의 후원으로, 소아암어린이 형제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아픈 형제의 치료 때문에 그동안 가족의 관심에서 조금은 소외되었던 형제들을 위해 스트레스도 풀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캠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소아암 교육, 도미노, 물놀이, 별자리여행, 부엉이 하이킹, 캠프 화이어 등. 특히 금년 캠프에서는 캠퍼들을 대상으로 '싸이코 드라마(심리극)'를 실시하였습니다. 싸이코 드라마 진행 중 주인공으로 나온 몇몇 캠퍼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고 관객인 캠퍼들도 주인공 캠퍼의 현실이 자신과 비슷하기에 함께 눈물짓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캠퍼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다른 친구들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사실 중 하나는 평소에는 왠지 낯설던 녀석들이 저학년 고학년을 막론하고, 소아암 교육시간에는 조용하게 형제의 병에 대해 열심히 필기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형제들의 병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이지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캠프가 끝날 때 아쉬워하는 것은 캠프에 참석한 아이들이나, 스태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년에도 멋진 캠프를 준비하여 더욱 의미있는 만남,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  
형제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기념품을 선물해 주신 '삼성생명 동작지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 싸이코 드라마란?? --



정신치료의 한 방법으로 개인이 단순히 자신의 문제에 대해 말하는 대신 행동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즉 스스로 연기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리적 자원을 탐구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집단 치료로서 뿐 아니라

지적인 면이나 언어 표현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아동, 청소년 등)들에게 신체적 동작을 통한 즉, 신체 언어로서 표현을 하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어 청소년 단체, 교육기관, 산업체에서 인성교육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 2 두편의 연극관람

지난 여름, 레스토랑長的 지영랑 사장님께서 2편의 연극관람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극단 이루와 파임커뮤니케이션즈 주최의 '눈먼 아비에게 길을 묻다'라는 연극으로,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한국남동발전(주) 직원 여러분과 종이접기 선생님께서 관람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극단 사다리의 '너하고 안 놀아'라는 연극으로,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이 즐겁게 볼 수 있었던 공연이었습니다. 좋은 연극이 있을 때마다 잊지 않고 챙겨주시는 지영랑 사장님과 좋은 공연을 보여주신 극단 이루와 파임커뮤니케이션즈, 극단 사다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3 교보생명·교보문고 "마음에 힘 2004"

'마음에 힘 2004' 캠페인은 "책"을 매개로 하여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딪치게 되는 역경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희망을 나누자는 범국민 사회운동입니다. 이 캠페인은 교보생명과 교보문고의 주최로 지난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이 추천해 주신 도서들 중 <마음에 힘이 되는 도서 140선>을 선정하여 판매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보생명과 교보문고가 매칭펀드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기금 2,000만원과 500만원 상당의 어린이 도서를 7월 26일, 재단으로 기부해 주셨습니다.

소아암 어린이와 그 가족의 마음에 힘이 되어 주신 교보생명과 교보문고의 큰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4 익명의 천만원

얼마 전 재단에서는 "예수사랑"이란 이름으로 10,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손이 한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처럼 본인의 선행을 밝히고 싶지 않으셨던 것인지, "예수사랑"이란 이름 외엔 보내 주신 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졌다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심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든든한 후원자들이 계시기에 소아암 어린이들과 가족들 모두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완치의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사랑은 소중한 곳에 베풀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5 소중한 헌혈증,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 ♥ LG전자 헌혈증 기증

무척이나 더운 날씨가 계속되던 8월의 여름. 8월의 더위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진 LG 전자 노동조합원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LG 전자 노동조합 이영호 사무국장님, 사회공헌그룹의 박낙원 부장님, 노경협력그룹의 이현영 차장님, 강우진님께서 뜨거운 사랑이 담긴 헌혈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2만 8천여명의 LG 전자 임직원들의 사랑으로, 'LG 전자와 나누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 행사를 통해 모여진 헌혈증은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 교보생명 헌혈증 기증

2004년 교보생명(주) 신입사원들은 연수기간 중 자발적인 참여로 헌혈증을 모아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재단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회사의 사명을 몸소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신입사원 여러분들의 의지에 격려의 박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6 나를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구름 한점 없이 높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던 6월 12일. 올림픽공원 88마당에서는 100여명의 소아암어린이와 가족들이 참여한 제4회 완치기원 연날리기 '나를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행사가 열렸습니다.

소아암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완치기원을 다지는 금번 행사는 기업은행 노동조합(위원장 김동섭)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소아암 어린이들의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등 소아암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함께 해주신 기업은행 노동조합 여러분, 그리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소아암 어린이 가족분들, 풍선아트와 페이스페인팅으로 자원봉사해주신 미션드림선교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아암 어린이들이 연에 담은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해 봅니다.

# They Never Want to Tell You

## - Children Talk about Cancer -



David J. Bearison

### 소개의 글

지금까지 나는 소아암 환자들이 '암'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 하지 않았다. 아마도 나는 소아암을 둘러싼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정작 '소아암'을 직접 대면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소아암 환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 수 있었다. 그리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주고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의도 우체국 훈 사랑의집 사회복지사 손은주

### • 저자소개 •

저자는 발달심리학자로 Mount Sinai School of Medicine에서 소아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Mount Sinai Medical Center 혈액종양과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 • 책의 구성 •

책의 1부에서는 8명의 소아암 환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기술한다. 2부에서는 소아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화두에 대해 다양한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일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소아심리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제언한다.

### • 책의 내용 •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암'이라는 것을 숨기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을 보호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례로 한 어린아이는 진료를 나오면서 좋아하는 식당에 가게 되었을 때 벌써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어른들의 이러한 숨기는 태도는 오히려 아이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의 상황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낮은 치료율로 인해 아이들에게 가능한 '암'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아이들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소아암 치료방법의 개선프로 70% 완치율을 보이고 있는 지금은, 아이들에게 '암'을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장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주어야 하는가 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병에 대한 이해 정도가 아이들 스스로 투병 과정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는데 큰 도움을 주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아이들이 자유롭게 '암'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이 책에서는 소아암과 관련된 어른들이 아이들이 '암'과 '암'에 대한 경험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아암 치료과정에 잘 적응하고, 생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느끼는 정서적 어려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모든 것을 쏟아내 버리고 담아두지 않았다. 만일 내가 앞에서 골똘히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 안에 담아 두었다면 나는 미쳐버렸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내 마음 밖으로 이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 그리고 나면 한결 내 기분은 나아졌다.

- 책 중 어떤 소아암 환자의 이야기 -

출판사 Harvard University Press(1991)

이 책은 현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미니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아직 번역되지 않은 원서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림: 소보이  
www.soboi.net

### 신한사랑나눔

신한사랑나눔에서 행복을 찾아가세요~  
신한의 사랑 나눔 캠페인은 쪽~ 계속됩니다.



- ♥ 정기기부 신청 방법
-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http://www.shinhancard.com/Gibu/mail.jsp>에 접속하신 후
- 기부처검색에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선택

- ▶ 알아두세요~
- 신용카드 고객 및 프리체크카드 고객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포인트가 1만 포인트 도달시 마다 재단으로 자동 기부됩니다.
-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을 원하실 경우, 재단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 신한카드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fine카드

- 1996년 기업은행 노동조합과 함께한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지원의 인연이 2004년 6월 출시된 'The Fine'카드 사용시 발생하는 적립금 기부로 이어져 계속됩니다.
- 기업은행 'The Fine'카드 사용자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카드 사용분에 대한 적립금 보

상 서비스로 아름다운 나눔 문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은행 'The Fine'카드를 사용하고 발생하는 적립금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하시면, 기부금이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소중히 쓰이게 됩니다.



### KT "집전화로 희망을 주세요"

내 작은 도움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일까요?  
지금 KT 집전화로 희망을 걸어보세요~

#### KT 집전화로 희망을 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 신청방법
- ☞ 무료전화 1516으로 전화 → 생명전화 중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선택하기
- ☞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1. <http://1516.kt.co.kr> 방문 후 상단메뉴 신청/변경 클릭
2. '생명전화' 선택하기
3.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선택하기
4.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여부에 클릭을 한 후 등록 클릭
5. 등록완료!!

위의 신청을 완료하시면, 집 전화를 사용할 때

마다 사용료의 1%가 적립되어 재단으로 전달됩니다. 적립금은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소중히 사용됩니다.

### 선국이의 국토순례

2004년 7월 28일, 재단의 김영조 후원자님과 아들 선국이의 국토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택인 부산을 출발하여 경북 울진에 있는 목적지 할아버지, 할머니 댁까지 왕복 총 527Km의 대장정.

무더운 여름날, 선국이에게도 아버님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을 527Km의 국토순례를 소아암 어린이들의 완치를 기원하며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신 대장정의 두 대원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선국이와 김영조님께서는 국토순례동안 모금된 후원금을 재단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의 완치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한뜻후원자 소식

#### 감사합니다.

신규회원 소개(2004. 6. 1. ~ 2004. 8. 31.) 가나다 순입니다.  
그나래음악사랑회 김정식 문성욱 이창호 장명순(천육희) 장원정동식 황은정

\* 2004년 8월31일까지 622분이 한뜻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수호투사 소식

새로 등록하신 수호투사입니다. (2004. 6. 1. ~ 2004. 8. 31. / 가나다 순입니다.)

고동식 김리나 김문숙 김미숙 김수병 김이경 김정애 김현정 김희진 민경인 박태규 신하나 유지영 이옥희 이은주 이현동 이해숙 장상희 조경순 조성희 황수민

- ◆ 새로 신청해주신 수호투사님, 이미 수호투사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4. 8. 31. 현재까지 1,098분이 수호투사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 ◆ 수호투사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clf.org/후원안내/명예의전당](http://www.kclf.org/후원안내/명예의전당))

### ♥ 특별후원 소식

#### • 우체국 현 사랑기금

- 명민경(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인천) : 300만원
- 김혜림(내배엽동종양/서울아산병원/경북) : 300만원
- 박빛나(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 300만원
- 장현태(급성림프구성백혈병/원광대학교병원/전북) : 300만원
- 김명성(급성림프구성백혈병/전남대학교병원/광주) : 300만원
- 권용준(연소형골수단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경기) : 300만원
- 방수진(급성림프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충북) : 300만원
- 조성현(원시신경외배엽종양/삼성서울병원/경북) : 300만원
- 이태준(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경기) : 300만원
- 정덕균(뇌종양/서울대학교병원/전북) : 300만원
- 김상은(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경기) : 300만원
- 박재욱(혈막육종/고신의료원/울산) : 300만원
- 유루아(신경모세포종/여의도성모병원/경기) : 300만원
- 이정현(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대구) : 300만원
- 윤재근(수모세포종/부산백병원/경남) : 300만원
- 정은혜(생식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경기) : 300만원
- 박형찬(신경모세포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 300만원

- 장일식기금 : 황호영(혈관종/부산백병원/부산) : 400만원
- 배재열기금 : 김준환(뇌종양/세브란스병원/서울) : 100만원
- 알리안치기금 : 김청미(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충남) 200만원
- 이 래 기 금 : 최영신(역형성형별세포종/세브란스병원/경기) 100만원

### 후원계좌 안내

-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후원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예금주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 예금구좌
  - 국민은행 : 001-01-2353-890
  - 기업은행 : 090-000260-04-015
  - 농협 : 029-01-176943
  - 우체국 : 012989-01-003327
  - 조흥은행 : 310-03-0002396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주고 계시는 수호투사후원자님께서도 편리한 CMS로 후원금을 납부하세요!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5일)에 알려주시는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 천사백운동 지원환아

천사백후원금을 지원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2004. 6. ~ 2004. 8.)



**김시연(여/만 1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2004년 10월 비혈연간 조혈모세포이식예정



**오해주(여/만 5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2004년 9월 제대혈이식시행



**양세현(여/만 4세)**  
급성골수성백혈병/화순전남대병원  
2004년 8월 형제간 조혈모세포이식시행



**구경호(남/만 10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2004년 10월 비혈연간 조혈모세포이식예정



**민연기(남/만 8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  
2004년 8월 형제간 조혈모세포이식시행



**조영신(남/만 8세)**  
윌름씨 증양/서울아산병원  
2004년 8월 자기조혈모세포이식시행



**정우영(남/만 10세)**  
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2004년 7월 제대혈이식시행



**김동현(남/만 6세)**  
급성골수성백혈병/동아대학교의료원  
2004년 7월 제대혈이식시행



**한분희(남/만 8세)**  
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병원  
2004년 9월 형제간 조혈모세포이식시행



**윤연빈(여/만 7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국립암센터  
2004년 8월 제대혈이식시행



##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4. 8. 31. 현재)

참여후원자 : 2,932명    구좌수 : 22,559구좌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4. 6. 1. ~ 2004. 8. 31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후원계좌 안내

경남은행 CMS 최은진  
국민은행 CMS 김미경 김승균 김윤희 방주미  
이종선 임현숙 전재하  
기업은행 CMS 김동현 류상호 이정은 이해원  
농협 CMS 권순철 박보건 송유진 이대영  
임병길 조진우 최윤정  
부산은행 CMS 주현진  
신한은행 CMS 권석환 김선아 이선옥  
외환은행 CMS 김현정 문순희 황인제  
우리은행 CMS 김혜리 윤미옥 이은정 장인덕  
우체국 CMS 김정남  
제일은행 CMS 차두현  
제주은행 CMS 이여화  
조흥은행 CMS 강국희 김창호 김향숙 이정희  
하나은행 CMS 손혜숙 홍호신  
대구은행 자동이체 이화미 최영미

경남은행 : 514-07-0175564  
광주은행 : 200-107-315315  
국민은행 : 031-01-0414-356  
기업은행 : 090-000260-04-022  
농협 : 029-01-170940  
대구은행 : 004-05-179828-001  
부산은행 : 070-01-021379-8  
신한은행 : 394-01-000694  
외환은행 : 141-22-00799-6  
우리은행 : 112-04-112571  
우체국 : 012989-01-003313  
제일은행 : 225-20-385050  
조흥은행 : 367-01-192434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한미은행 : 100-59711-251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알려드립니다.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소식지와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주소 및 연락처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재단으로 알려주세요.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셔서 매년 보내드리는 소득공제용 후원금 영수증을 필요한 시기에 받지 못하는 후원자님들이 많습니다. 평소 우편물 수령이 잘 되지 않은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2-766-7671~3) 또는 E-mail(cancer@kclf.org)을 통하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후원금 납입 영수증 발급안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재정경제부 공고 제2001-26호)로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CMS방법으로 납입해 주시는 후원자님께서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 발급·발송되며, 자동이체나 지로로 납입해 주시는 후원자님께서는 재단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발급, 발송해 드립니다. 참고로, 지로영수증의 경우 연말정산용 영수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천사백 후원자님도 CMS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CMS란?

후원자님께서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와 후원자님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재단에 알려주시면, 재단에서 후원자님을 대신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 CMS를 신청하시면 이런 점들이 좋아요!!
- 1. 매년 인상되는 치료수수료와 우편발송요금이 절감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2. CMS는 자동이체 기간을 연장하실 필요가 없으며, 해지 및 신청을 원하시는 후원자님들께서는 재단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3.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 사랑의 모음터

## ◆ 사랑의 헌혈증서 (2004. 6. 1. ~ 2004. 8. 31.)

교보생명(주) (34)	권순철(202)	권진욱(3)	김영대(3)
당감성당(39)	장귀남(1)	주재련(100)	천강재(6)
KT건설사업단(34)	LG전자노동조합(816)		

\*( )는 기증하신 헌혈증 매수입니다.

## ◆ 특별 후원금

2004년 6월 한국남동발전(주) 100,000 박영후 300,000 이선부 400,000  
 (주)한국디지털미디어 200,000  
 7월 김택수, 김수태 100,000 별난아저씨 ₩6,710 (주)비엠펜시픽 500,000  
 8월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000,000 교보생명(주) 20,000,000 김선국 140,000  
 예수사랑 100,000,000 정현주 200,000

## ◆ 후원물품 (2004. 6. 1. ~ 2004. 8. 31.)

故김홍기(주) 쌀 교보문고(주) 도서 30권 김병찬(주) 한라봉 김상호 생선 세제 김영훈 김치  
 김지연 원장 김현지 학용품의 김화정 쌀 김희준 김치 한국남동발전(주) 앵글서랍장  
 (주)드림팩토리클럽 공기 박소영 게임기 사랑터 식료품 삼성생명동작지점 캠프기념품  
 서성혁 감자 서정우(주) 식료품 손민기 감자 신세정 김치 이정은 상품권 이정현(주) 비누  
 정유진(주) 커피 프림 최영석 라면 비누 치약

## ◆ 물품 후원 안내

우리 재단은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재단이 운영하는 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2004년 가을호는 부광약품(주)에서 제작지원해주셨습니다.